

면역학적 천식 치료

기관지 천식은 유병률이 일반인의 5% 가량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현재의 천식치료 지침에 따른 흡입스테로이드와 지속성 베타 항진제 등의 약물 치료로 많은 수의 환자에서 기관지 천식의 조절이 잘 되나,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천식 환자가 약 10%에 달한다. 이들 중증천식 환자들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어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 천식의 잦은 악화와 심한 증상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이들 중증천식환자에 새로운 치료방법이 절실한 형편이다.

새로운 치료방법 중 하나로 천식의 면역학적 기전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있다. 기관지 천식의 기전의 여러 세포들과 세포 성분들이 관여하는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다. 최근 기도염증과 기관지 천식의 병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이러한 이해의 증가와 분자 생물학적 기술의 발전은 기관지 천식의 치료에 다양한 면역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강의에서는 기관지 확장제 같은 화학적 물질의 사용이 아닌 면역학적 기전을 이용한 치료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천식의 기도면역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현재 임상에서 사용중인 면역학적 제제와 임상시험 등의 개발단계에 있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대상으로는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수용체에 작용하는 단항체나 작은 물질과 TLR-9 리간드인 CpG, Treg의 기전에 관여하는 단백질 등이다. 이러한 면역학적 치료 방법의 전제 조건은, 특정 환자의 천식이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기전에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지 천식은 하나의 기전을 바탕으로 한 질환이 아니며 다양한 기전을 바탕으로 한 유사한 임상상을 보여주는 질환의 묶음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면역학적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환자에서 특정 면역학적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관지 천식을 기전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세분화 하는 작업도 면역학적 접근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면역학적 치료가 기존의 약물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수의 환자와 의료인에게 기쁜 소식으로 미래의 천식치료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먼저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며, 경제적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